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공무원이 존경받는 나라

윤 재 웅
동국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최부(崔溥. 1454~1504)는 조선의 관리였다. 스물여덟에 과거에 급제하고 3년 뒤 성균관 정6품이 되어 서거정과 함께 민족의 역사서인 ‘동국통감’을 편찬하는 데 힘을 쏟는다. 그 뒤 새로운 직책을 받아 1487년 9월 제주도로 떠난다. 추쇄경차관. 정확한 인구 조사가 임무다. 그러던 중 이듬해 정월 부친상을 당해 거친 바다에 배를 띄워 고향인 나주로 향한다.

일원 42명과 함께 배에 오른 이 항해는 애초에 무리였다. 아니나 다를까, 배는 풍랑을 만나 정처 없이 표류한 끝에 남중국 태주부 임해현 우두산 아래 당도한다.

거기서부터 최부 일행은 중국의 내륙 운하를 따라 베이징까지 이른 다음 압록강을 거쳐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다. 표류한 지 넉 달 보름만이다. 왕명을 받들어 그간의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바쳤는데 이것이 바로 ‘표해록’이다.

이 책은 엔닌의 ‘입당구법순례기’ (9세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13세기)과 함께 세계 3대 중국견문록으로 손꼽힌다. 15세기 중국 저간의 사정을 이토록 정밀하게 서술한 기록은 중국 내부에서도 찾기 어렵다.

그는 마르코폴로처럼 구술의 방식을 택해 중국에 대해 과장하지 않았으며 일본 승려 엔닌처럼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도 않았다. 조선의 엘리트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했던 최부는 그 험한 여정 속에서도 ’조선의 관리’로서 기품과 정직성을 잃지 않았다.

‘표해록’의 역사적 가치는 크다. 15세기 중국 동부 지역에 대한 세밀한 기술은 그가 ‘동국통감’을 편찬하던 엘리트 문필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만들어낸 나라. 왕명으로도 고칠 수 없는 추상같은 엄정함의 정신. 그 방대하고 정밀한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문화콘텐츠가 최부 같은 교양인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 책의 가치는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고난극복의 스토리텔링 구조에 공익의 리더십이 강해서 오늘의 답답한 현실에도 호소력이 강하다.

조선의 관리 최부는 어떠한 난관에 닥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빗물 받을 그릇조차 없어 오줌을 받아 식수로 마셔야 했고, 금은을 요구하는 해적이 어깨에 작두를 내리치며 겁박해도 “몸뚱이를 뭉개고 뼈를 부순다고 해서 금은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해안에 표착해서는 왜구로 오인 받아 모진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난파선 리더로서의 지혜와 기품을 잃지 않았다. 가장 귀감이 되는 것은 함께 타고 간 42명 전원과 동반 귀국했다는 점이다. 136일간 파란만장한 고난의 여정 동안 그는 어찌하여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던가.

참된 지도자는 간난신고의 과정에서 탄생한다. 이순신이 그러했고, 그보다 100년 전엔 최부가 바로 지도자의 전범이었다. 아쉽다. 위대한 기록의 나라 조선의 선조들은 그러했는데 오늘 이 땅엔 참된 지도자 귀하다. 불신과 배타의 논리가 유령처럼 어슬렁거리고, 아프고 심란한 국민 모두의 마음 함께 껴안으려 하지 않는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을 수도 없이 맞으면서 최부는 일행들에게 당부한다. “우리는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골육지친과 다름 없으니, 지금부터 서로 돕는다면 몸을 보전하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구하고, 한 그릇의 밥을 얻으면 같이 나누어 먹는다. 병이 생기면 같이 돌보아 한 사람이라도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부는 어떻게 모두를 살렸던가. 그는 매순간마다 문제 해결을 주도했다. 공동체정신을 강조했고,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당부는 왕명보다 지엄했다. 그리하여 그에겐 ‘존경’이라는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나는 그가 ‘존경’의 힘으로 42명 전원을 살렸다고 생각한다. ‘존경’ 앞에서는 낙심도 원망도 미움도 다 사라진다. 생명의 열망과 내일의 희망이 새로 생겨난다.

이런 존경의 힘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 조롱이 비판적 지성으로 위장되는 사회에 존경을 새롭게 초대해야 한다. 최부가 진정 나라의 공복(公僕) 아닌가. 좋은 나라 멀리에서 찾을 필요 없다. 공무원이 존경받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의료칼럼

‘괜찮아 아픈거야’

김 성 완
전남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광주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최근에 막을 내린 TV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주인공인 극작가 장재열(조인성 분)은 환시와 환청을 경험하고 현실과 착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는 것으로 그려졌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주인공은 결국 병을 극복하게 되고, 결혼하여 사랑을 이루는 해피엔딩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 불륜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지 않고서도 따뜻하게 극을 그려내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 냈고, 그간 국내 드라마에서 다룬 바 없는 조현병을 중심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드라마였다.

극 중 대사에서도 나오듯 조현병은 100명 중 1명이 앓는 병으로,한 아파트에 5000명이 산다면 그 중 50명이 앓고 있는 드물지 않은 질병이다. 더 나아가 질병이 주는 사회경제적 장애와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부담이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조현병 치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그간 드물었고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되어 왔다.

‘조현’은 ‘현을 고른다’는 뜻으로, 현악기의 현처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뇌의 신경구조가 무슨 이유에선지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정신적 혼란스러움이 찾아온다는 의미다.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해주는 약물복용과 심리사회적 도움으로 치료될 수 있다. 악기가 튜닝되면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조현병은 적절한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병이다.

드라마에서는 조현병을 불치병이 아니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이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고 표현하였다. 최근에는 조현병을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 1~4기로 나눠 구분하는데, 이는 병기에 따라 치료 반응과 경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치료가 늦어질수록 치료 반응이 좋지 않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마치 내시경으로 위암이나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전신마취나 개복 없이 내시경 절제가 가능하지만 통증이 시작된 뒤 암을 늦게 발견하면 배를 열고 위나 장을 절제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조현병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기간과 정도를 단축하고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질병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는데, 조현병 환자의 대부분은 1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병이 시작된다.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에서는 최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적극 확대되고 있다. 조현병 발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한 ‘조기 정신증 예방 및 중재 센터’의 확대에 호주 정부는 5년간 2억 5천만 달러(약 24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해 2011년부터 집행하고 있다. 일반 성인과 노년층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막대한 정신보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현병이 만성화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조기 치료하는 것이 결국 의료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다 경제적이라고 호주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서구 다른 나라에도 적극 확대되고 있다.

예방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은 없다. 이는 정신건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강해 치료 시작 시기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늦다.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에 빠지는 조현병은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과 뇌신경이 잠시 아픈 것일 뿐이다. 늦기 전에 전문가를 만나 아픈 것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질환도 다른 신체질병처럼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정신장애에 대한 후진적인 시각과 정신보건 체계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기 고

4대강 사업과 광주 폴리

유 순 남
수필가

4대강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생태, 토목 전문가 등 지식층들은 그 폐해를 누누이 지적했다. 나 같은 무지렁이도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내용을 종합해보고 ‘4대강사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22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경제성은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싫어서였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당대의 사람뿐 아니라 대대손손 살아가기 어렵고, 그것을 복원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때, 광주 폴리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본다. 광주 폴리사업 역시 맨 처음 시작하려할 때 여기저기서 반대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반대의견은 사장된 채 수 년 째 계속되고 있다. 한번에 25억씩 들여서 십년간 하는 사업이라는데 앞으로 어디에 무엇을 더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내가 폴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낭비다. 즉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옛 성현들도 ‘절용이 애인(節用而愛人-혈세를 아껴 쓰는 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일)’ 이라했다. 둘째, 도심의 시야를 답답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광주 시가지에 폴리는 화사첨족(畵蛇添足)이나 다름없다. 그림에는 여백이 있어야 아름답고 건축물이나 도시에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보기 좋다. 셋째, 어떤 것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있었다. 넷째, 노후 처리 문제다. 짐작컨대 광주 폴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흉물이 되어가고 결국 애물단지가 되어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비유하자면 비싼 외국 화장품으로 필요 이상의 화장을 해서 본연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피부만 상한 꼴이다.

시민들은 가장 시야를 답답하게 하는 폴리로 충장치안센터 앞 ‘99칸’(작가 피터 아이젠만)과 금남로공원 앞에 있는 ‘유동성 조절’(작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을 꼽았다. 중앙초등학교 옆 사거리에 설치된 ‘광주사람들’ (작가 나에르 테라이)은 번잡스럽고 뾰쪽한 철 구조물이 보는 이의 가슴을 섬뜩하게 하고, 인도를 많이 차지해서 보행할 때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가끔씩 지나는 광주세무서 앞 ‘열린 장벽’(작가 정세훈 김세진)에서는 잔잔하거나 혹은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길에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기는 멋쩍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있는 대리석 의자 에 부딪혀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옛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옆 골목에 설치된 ‘투표’ (건축가 렘 쿨하스와 작가 인고 니어만)는 그 때 그 때의 핫 이슈를 오가는 시민이 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투표를 대신한다. 발상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은 동행자와 얘기를 나누며 지나칠 뿐, 질문 문구를 보거나 찬성· 중립· 반대라고 쓰인 땅바닥을 보고 선택해서 걷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광주공원입구에 있는 ‘유네스코화장실’(수퍼플렉스), 광주천 서석대폭포 옆에 위치한 ‘광주천독서실’(건축가 데이비 등 아지예와 소설가 타이에 셀라시가 공동 참여), 광주역 앞 교통섬에 자리 잡은 ‘혁명의 교차로’(작가 에얄 와이즈만), 아시아 문화전당 옆 ‘광주사랑방’(작가 프란시스코 산인), 대성학원 앞 ‘잠망경과 정자’(작가 오시하루 츠카모토), 장동사거리 교통섬에 있는 ‘소통의 원두막’(작가 후안 헤레로스) 등 작품 하나하나는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폴리는 공공 설치물인 만큼 시민생활에 불쾌함을 준다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 광주시는 백지상태에서 시민의 뜻을 묻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길 바란다. 만일 그 예산의 십분의 일씩만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다면, 그것들은 메마른 도심에 푸름과 그늘 그리고 시원함과 산소를 주고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다워져서 그 값어치가 올라감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자연이 최고의 예술품이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인위적으로 무엇을 설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전남 ‘친환경의 역습’ 철저한 대비책 세우라

깨끗한 먹을거리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재배지에서 친환경 약제의 성능 논란이 일고 있는가 하면, 해충으로 인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은 전체 논 면적 6만8000ha의 68%인 4만6000ha가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약제 살포에도 병충해가 발생했다는 농민의 주장이 제기되고, 곤충으로 인해 작물이 피해를 입는 ‘친환경의 역습’에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고흥군 포두면 일대 3만 평의 친환경 논에서는 세균성 잎마름병, 벼 도열병 등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 농민들은 친환경 약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업체 측은 종자소독 부실, 약제 살포 미흡 등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말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일대 친환경 농경지와 주변 20ha에서 풀무치떼가 대량 발생해 원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독성이 약한 친환경 약제 때문에 곤충의 내성이 강해진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잦은 가을비 등 이상기후 탓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 약제는 1회 살포에 효능이 40여일 지속하는 일반 농약에 비해 잔류기간이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뿌리는 횟수를 늘려야 하는 등 사용방법이 까다롭다. 또 도열병 등에 대비한 친환경 약제는 ‘예방 기능’위주여서 농민들이 확실한 효과만을 따져 일반 농약을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친환경 농업은 소비자 건강과 우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제대책을 세우는 등 ‘친환경 역습’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백억대 날린 갬코사기 엄히 책임 물어야

광주시가 3D(3차원 입체영상 변환) 컨버팅 한·미합작투자법인인 갬코(GAMCO)와의 사업과 관련해 106억 원을 사기당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시의 그릇된 판단으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미국 측 파트너인 K2AM을 상대로 70만 달러 반환 소송을 냈지만 재판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법원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승소하더라도 재판 비용과 회수금이 60%밖에 되지 않고 판결까지 최소 5년이 걸리는데다 위약금 회수 가능성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갬코 사태는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72억 원의 예산을 대고서도 업체의 실체나 기술력 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 실제로 미국 업체는 입체영상 변환작업을 해본 적이 없고 원천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012년 감사원과 시민단체의 ‘사기’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지켜봐야 한다며 발뺌해 왔다.

이로 인해 투자비 72억 원과 재판·행정비용 등을 포함, 106억 원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여기에 시의 이미지 손상과 의회·시민단체와의 소모적 논란까지 더하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광주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과 드린다’는 입장만 표명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00억 원대를 날리고서도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를 바 없다.

광주시는 먼저 갬코 사기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 전임 시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현직에 대해선 엄히 문책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 및 국제투자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조롱과 도덕상실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이 초코바 ‘자유시간’을 바닥에 뿌리고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같은 일베의 행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등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베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광화문 가서 ‘자유시간’ 먹고 자유를 되찾자”라며 “노란 리본을 단 어른을 보면 자유시간을 나눠줘라”는 내용과 함께 자유시간 초코바를 뿌려놓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뿐이 아니라 이들은 자리를 옮겨 치킨과 피자 등을 먹으며 또 한번 유가족을 조롱했다.

‘일베’ 회원들은 지난 6일에도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 100판과 맥주, 치킨, 육개장을 먹으며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인바 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 SBS 김성준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지만 자기가 표현한 생각이 얼마나 천박하고 비인륜적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일베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가수 레이디제인도 “섬뜩하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의식조차 없을 텐데…” 라며 이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일베의 퍼포먼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남을 조롱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조롱의 시대’가 된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권력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조롱’의 긍정적 의미가 마침내 오프라인 공간에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정신적 테러’에 이른 것이다.

일베 뿐 아니라 온라인 토론장 댓글부터 저명한 논객들의 건전한 토론장에서까지 인격비하적 ‘조롱’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용인되어 온 이러한 ‘조롱’ 행위가 비인간적 패륜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상실된 도덕가치 회복에 모두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